

보도자료



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

발로 뛰는 윤명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m567h@na.go.kr

[2015. 9. 17(목)]

윤명희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최근 5년간 수협 역대연봉자 139배 증가,
접대비 사용액은 200억 넘어**
 - 수협이 제식구 챙기기에 열중할 때 어업인의 어가부채는 73배 증가
- 2. 사업준비금을 목적으로 임의 탈퇴 후
재가입하는 악성 탈퇴 조합원 관리 강화해야**
 - 조합원 재가입 관련 규정 전무,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2만 명 넘어서
- 3. 수협은행 전체 대출 중 어업인 대출은 고작 16%뿐**
- 4. 전체어선의 85%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은 11%에 불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30%,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대응 대책 마련해
- 5. 수협조합감사 기능과 국내 수산물 판매 증진 촉구**
 - 미회수된 변상금 143억, 미회수율은 80%에 달해
 - 학교급식과 공판장 수입수산물은 여전히 30%이상 납품되며 수협쇼핑몰 수산물 판매는 99%에서 60%로 급감

최근 5년간 수협 역대연봉자 139배 증가, 접대비 사용액은 200억 넘어

- 수협이 제식구 챙기기에 열중할 때 어업인의 어가부채는 73배 증가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 국정 감사에서 수협의 직원은 18배, 역대연봉자는 139배가 증가하고 접대비 사용액으로만 200억을 넘게 사용하는 등 제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고 정작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수협중앙회 1962년 창립 당시 145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 2,645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2010년 역대연봉자(임원 제외)가 한 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39명으로 139배가 증가함.

<최근 5년간 수협 직원 역대 연봉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별급	1	20	40	42	42
1급	-	-	35	48	94
2급	-	-	2	-	3
3급	-	-	-	-	-
합계	1	20	77	90	139

- 또한 최근 5년간 접대비 사용액은 203억 3천 5백만 원에 달하는데, 법정 사용한도 초과를 넘는 접대비 사용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액만 34억 9천 7백만 원인 실정임.

<최근 5년간 접대비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접대비 사용액	사용한도	한도초과로 인한 법인세액 현황
2010년	4,726	889	844
2011년	4,468	831	800
2012년	4,227	1,019	705
2013년	3,619	854	608
2014년	3,305	847	540
합계	20,345	4,440	3,497

* 접대비 사용한도 초과 X 22% = 법인세액

- 이처럼 수협의 규모는 양적 팽창을 하며 배를 불려갈 때 어업인 환경 및 삶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음. 수협 창립 당시에 비해 현재 어가인구는 84% 감소하였으며, 1980년 대비 현재의 어가소득은 35년만에 16배 증가했지만, 어가부채는 73배나 증가하였음.

- 또한 어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2013년 -6.6, 2014년 -7.5)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업생산액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0.6%에서 2014년 0.5%에 감소하고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어가부채는 급상승하고, 어가인구와 어가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 들고 있는데, 수협에서는 조직과 급여만 늘어나가는 것은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현상이다.”라며 수협의 탈바꿈을 촉구함.

사업준비금을 목적으로 임의 탈퇴 후 재가입하는 악성 탈퇴 조합원 관리 강화해야

- 조합원 재가입 관련 규정 전무,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2만 명 넘어서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준비금 등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 탈퇴하는 조합원 악성 조합원과 무자격 조합원 자격 관리 강화를 촉구함.
- 수협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어업인 및 조합원 현황을 보면, 20세 이상 어업인은 12만 명인데 반해 수협 조합원은 20세 이상 어업인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6만 명에 달함.
- 또한 수협에서는 매년 무자격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는데 무자격 조합원이 매년 4천 명 이상씩 발생하여,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수가 2만 명을 넘어섬.
- 뿐 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면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과 조합의 사업적립금 중 자신의 지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 현행법에서는 탈퇴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제한사항이 없어 해당조합원이 그 동안 적립된 사업준비금 등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로 탈퇴한 후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만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재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최근 5년간 재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9년 웅진 조합에 4백 49만원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2014년에 탈퇴하고 2015년에 재가입하였는데, 탈퇴 당시 본인이 출자한 금액의 약4배에 달하는 사업준비금 1천 6백 51만원을 수령한 후 재가입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출자금보다 사업준비금 환급액이 더 많은 사례>

(단위: 천원)

연 도	조합명	가입	탈퇴	재가입	사업준비금	출자금	지분환급액
2011	구룡포	1996****	2011****	2014****	3,457	1,506	4,963
2014	웅진	2009****	2014****	2015****	16,511	4,490	21,001
	웅진	2010****	2014****	2014****	8,847	5,267	14,114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사업준비금을 받고 탈퇴한 뒤 재가입하는 것은 지역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힌다. 탈퇴 후 재가입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인데,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비롯하여 탈퇴 조합원 관리 및 재가입요건을 정비해 달라”고 촉구함.

수협은행 전체 대출 중 어업인 대출은 고작 16%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 국정 감사에서 국내유일의 해양수산전문 은행인 수협은행의 어업인 대출 비중이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담보대출 비중이 90%에 가까우며 담보 경매 금액은 118억에 달하는 점을 지적함.
- 수협은행 홈페이지에는 수협은행이 국내유일의 해양수산전문은행이며 정부의 해양, 항만관련 정책에 우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았음. 하지만 현재 수협의 대출 현황을 보면, 48조 9천 495억 원 중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7월 기준 대출 주체별 대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기업	가계	어업인			총계
			일반자금	정책자금	계	
대출잔액	204,936	96,515	12,827	45,959	58,786	360,237
비율	56.8%	26.7%	3.5%	12.7%	16.3%	100%

- 주체별 대출유형 자료를 보게 되면, 신용대출의 경우 기업은 25%인 반면, 어업인의 경우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한 어민 중 양어장, 축양장 등 담보물을 경매 당한 건수는 최근 5년간 42건 118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수협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금액)이 2011년 3천 573억에서 2015년 현재 4천 667억으로 130%가 증가했으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채권회수 불능을 대비해 적립해 놓은 충당금 3천 805억보다 고정이하 금액이 4천 667억으로 더 많은 실정임.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어업인들은 수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은 어민들을 버리고 기업과 가계대출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 “어장 등의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유일의 해양수산전문 은행인 수협은행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전체어선의 85%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은 11%에 불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30%,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대응 대책 마련해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대응 대책으로 양식재해보험률 가입률 제고와 전체 어선의 85%를 차지하는 5톤미만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적용 확대를 촉구함.
- 최근 45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이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평균 표층수온상승률이 0.4℃ 비해 3배나 높은 수치임.
- 수온상승으로 어획량과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고, 특히 명태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은 증가됨.
-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변화와 어업자원감소 문제는 개별 어업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수협중앙회가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음. 어업분야 중에 양식 어가들의 피해가 큰데,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입율	9.7%	8.2%	12.1%	23.4%	30%

- 뿐 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5톤 미만의 어선원과 어선 보험가입률이 11%으로 저조한 실정임. 이는 현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톤 미만의 어선과 어선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7
5톤 미만 어선	5.4%	8.3%	9.9%	12%	13.3%
5톤 미만 어선원	6.4%	7.6%	8.3%	9.2%	10.7%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환경변화와 그 속에서 어업인 들이 소득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와 더불어 기상이변을 대비한 양식재해보험률 가입률 제고 및 우리나라 어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5톤 미만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수협조합감사 기능과 국내 수산물 판매 증진 촉구

- 미회수된 변상금 143억, 미회수율은 80%에 달해
- 학교급식과 공판장 수입수산물도 여전히 30%이상 납품되며 수협쇼핑몰 수산물 판매는 99%에서 60%로 급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작년보다 더 심각해진 조합감사 변상금 미회수 문제와 수입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판매 급감에 대해 지적함.

○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은 미정리 현황을 보면, 누적된 미정리 건수가 138건에 달하며, 변상금 미회수율은 80%기 남고 금액으로 치면 143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변상 이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조합수	변상처분	회수금	회수율	미회수금	미회수율
60	17,367	3,058	17.6	14,309	82.4

○ 더욱이, 변상금 미회수 금액의 97%는 퇴직자들로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음. 회피가 가능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인 93%의 비리가 퇴직 이후에 적발되거나 비리가 적발된 당일 날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임.

<회원조합 변상금 미회수된 퇴직자 현황>

구분	인원	비중
퇴직 이전	11명	5.9%
퇴직 이후	171명	93%

○ 또한 학교급식과 공판장에 수입수산물은 여전히 30% 이상이며 수협 쇼핑몰의 수산물 판매는 2011년 99%에서 2015년 60%으로 급감한 실정임.

<최근 5년간 수협쇼핑몰 품목별 판매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수산물	99%	98%	83%	67.7%	60.8
가공식품, 농축산물	1%	2%	17%	32%	39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작년에도 수협 조합 감사 기능 상실과 수입수산물 판매 비중 증가와 수산물 판매 급감에 대해 지적하였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 졌다.”고 지적하는 한편,

○ “미회수된 변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퇴직 전에 변상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수협쇼핑몰이 수산물 전문 쇼핑몰로 특화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